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착공... 2026년 완공

광역 위생매립장 포화로 추진... 폐기물서 에너지 생산 가능 인접 시설 간 연계 활용도 높아... 백년대계 정책 밑거름 기대

전라남도 목포시는 24일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

목포환경에너지센터 내 부지에서 열릴 착공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전라남도·신안군청·사업 시행사·지역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수도권 2026년·비수도권 2030년) 및 광역 위생매립장 포화(99% 이상)로 인해 위생매립장의 지속 사용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한다.

총 사업비 978억 원 일차리량 220t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1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2020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확보되었다.

이후 2022년 3월에 사업시행사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적격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자원회수시설은 2026년까지 시설 완공을 목표로 단순한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열 에너지를 회수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간 연계 활용도가 높



전라남도 목포시는 24일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 자원회수시설 조감도.

목포시

은 시설로 목포시 폐기물처리 백년대계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건강권 확보·시설의 안

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2024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성군, 현장·토론 병행 실시

전라남도 보성군은 21일 보성국민체육센터에서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 발생을 대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현장과 토론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토론회는 보성군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실무반별 대응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이런 훈련은 현장과 토론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토론회는 보성군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실무반별 대응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훈련 점검사항은 △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 상황 보고 및 전파 △초기 화재 진화 및 인명 대피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 기구 설치·운영 △관계기관 합동 재난 대응 △현장과 토론을 병행하는 통합 연계 훈련 추진 등이다.

올해 하반기 안전한국 훈련은 21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하며 산불·다중이용시설 화재·인파 밀집 사고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에 대비해 훈련 장소로 보성국민체육센터를 선정했다"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각종 재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생환 기자 msh@skyedaily.com

세종시 도담동 '빛초롱 축제'... 주민 화합 한마당

마을계획사업 일환, 25·26일 도담동 근린공원 일원... 다양한 공연·야시장 등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주민자치회와 도담동 행정복지센터가 25·26일 도담동 근린공원 일원에서 '2024 도담동 빛초롱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마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행사 첫날인 25일 오후 7시에는 '도담마을 보물찾기 탐험대'가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해 개최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끈 바 있다.

축제 참가자들은 도담동 근린공원에서 보석을 모으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협동

심을 발휘하게되며 소정의 경품도 제공된다.

행사 둘째 날인 26일에는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도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이 참여하는 발표회가 열리고, 2부에서는 세종컬처로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3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행사장 입구에 베틀시장·야시장이 마련돼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는 통장협의회·새마을부녀회 등

의 직능단체와 지역 상권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추진되는 행사이다.

김상균 도담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축제가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종업 도담동장은 "도담동 빛초롱 축제는 우리 지역의 가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행사이다"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담동은 축제 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방지

장소 : 도담동 근린공원 일원 (도담동 650)

10월 25일 (금)
19:00 | 도담마을 보물찾기 탐험대
* 신청기간 : 10.16.(수)~22.(화) | 도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신청수 40팀(80명) | 체험비 1,000원

10월 26일 (토)

15:00 ~ 17:00	17:30 ~ 18:30	19:00 ~ 21:00
● 프로그램 공연7팀 난타, 풍물 등 7팀 참여	● 세종컬처로드 공연 - 울웃 - 오티비(OTB) - 앙상블 느루	● 빛초롱 축제 - 개막식 - K-POP 댄스공연 - 벨리댄스 공연 - 개그맨 김경옥 공연

상설 프로그램 | 10.26일(토) 14:00 ~ 21:00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가 25·26일 '도담동 빛초롱 축제'를 개최한다. 세종시

하기 위해 행사장에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 영에 적극 참여해 예정이다.

치하고 직능단체인 자율방범대도 행사 운

이진서 기자 ljs@skyedaily.com



장흥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흥군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관람객 22만 명 '복적'

5일간 대장정 마무리... '100세 시대, 통합의학' 주제 힐링 체험 프로그램 등 호평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펼쳐진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박람회는 2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건강과 치유의 고장'으로서 장흥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주최하고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을 주제로 열렸다.

통합의학적 상담과 진료뿐 아니라 심신을 재충전하도록 한층 강화된 다채로운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

았다. 짜임새 있게 구성된 테마별 체험관은 단연 인기였다.

주제관에서는 통합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셀프케어 측정 등 의료기기 체험을 선보였다. 양한병과 통합의학이 어우러진 '통합의학관', 전남도 내 22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한 '건강증진관'에서도 다양한 건강 체험이 이어졌다.

뷰티 테라피·마사지 체험·의료기기 및 참가기업 정보 제공을 운영한 '힐링테라피·의료산업관', 흉재검사·전신마사지 등 통합의학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보

완대체의학관'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모든 체험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해 관람객 부담은 낮추고 행사장 주요구간에 설치된 화장실을 다수 배치해 관람객 편의는 높였다.

신규 조성된 맨발걷기 활동어싱길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키즈체험존 등 모든 연령층이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쓴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한 의료지원반 및 소방경찰 초소를 배치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했다.

안광철 기자 gcan@skyedaily.com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숲 체험 호응 만연산 일대 트레킹하며 '마음 치유'

구례군, 숲속 경치 즐기고 꽃차 테라피 체험

전라남도 구례군은 17일 재가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해 재가 암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모임은 화순군 만연산 일원에서 광주전남권역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숲길 따라 마음 치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암 환자와 가족은 만연산 일대를 트레킹 하며 숲속의 경치를 즐기고 꽃차 테라피를 체험했다.

국가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암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5년 생존율이 향상되면서 장기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구례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매월 '재가 암환자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서로 치료 경험과 식이요법 등 암 관련 정보를 공

유하고 심리 지원·원예치료·야외 활동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랜 치료로 지쳐진 체력과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는 대상자에게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주 2회 라인댄스 교실을 운영하여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자조모임에 참여했던 한 환자는 "숲과 꽃들을 구경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기분 전환이 되었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추억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철 기자 sk01075213883@gmail.com



전라남도 구례군이 17일 재가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해 재가 암 환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구례군



세종특별자치시가 청주시와 공동운영 중인 광역버스 B7 노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

세종~청주 광역버스 B7 노선 이용객 하루 1919명... 증가세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3일부터 청주시와 공동운영 중인 광역버스 B7 노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7 노선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세종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장기화에 따라 대안으로 우선 도입됐다.

현재 이용패스 본격 시행과 더불어 노선개편이 이뤄지면서 세종시 6대·청주시 5대 등 총 11대가 운영 중이다.

시가 개통 첫날인 8월3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51일간 이용객 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음에도 1일 평균 이용객은 191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일 기준으로는 1일 2180명 휴일은 1544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일자는 9월13일 금요일로 총 3026명이 이용했다. 이는 개통 첫 월요일인 8월5일과 비교해 148% 증가한 수치이다.

이진서 기자 ljs@skyedaily.com